

공개용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10호)

2025. 4. 24.

무 역 위 원 회

## 안내 사항

###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5-9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10호

조 사 건 명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덩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3  
대표자 박 승 준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창완, 김지은  
공인회계사 곽시명

피 신 청 인 1) 1. Metro Particle Co., Ltd.(메트로 파티클)  
2. Metro Industrial Park Co., Ltd.(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3. 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그린 리버 패널 트랑)  
4. Vanachai Group(바나차이 그룹)  
5.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파티클보드 (Particle board)  
HS 코드 : 4410.11.1000

의 결 일 2025. 4. 24.

---

1) 각 피신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와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 인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82%
  - 그린 리버 패널 트랑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3.14%
  - 바나차이 그룹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7.19%
  - 그 밖의 공급자 : 14.80%

## 이 유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이하 “신청인”)가 2024.10.18.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 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4.12.16.)에 대하여, 무역 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I. 배경

신청인은 2024.10.18.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여 동 사항을 2024.12.16.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의 회원사인 동화기업 주식회사(이하 “동화기업”)와 성창보드 주식회사(이하 “성창보드”) 2개사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태국의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메트로 파티클’,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 4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XXX, XXX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XXX, XXX 주식회사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제3항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9호(2024.12.16.)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4410.11.1000이다.

예비조사보고서<sup>2)</sup>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sup>3)</sup>·열압<sup>4)</sup>한 판(보드)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이다. 단, 배향성 있는 스트랜드 보드<sup>5)</sup>, 웨이퍼보드<sup>6)</sup>, MDF<sup>7)</sup> 및 표면을 피복<sup>8)</sup>한 파티클보드는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예비조사보고서 p.3.

3) 성형(Mat Forming) : 가구,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모양을 다듬는 공정

4) 열압(Hot Press) : 성형된 우드칩에 열과 압력을 가해 보드를 제조하는 공정

5)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 Oriented Strand Board) : 길이가 폭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되는 스트랜드(목재조각, strand)에 접착제(대개 내수성)를 첨가한 후 각 층이 직교되도록 성형·열압한 보드로, 관세분류번호(HSK)는 4410.12로 분류됨(파티클보드와 구분)

6) 웨이퍼보드(waferboard) : 길이가 폭의 2배 미만인 얇은 나무 웨이퍼(wafer)에 접착제(내수성)를 혼합하여 특정한 배열 없이 성형·열압한 보드로, 관세분류번호(HSK)는 4410.19.1000로 분류됨(파티클보드와 구분)

7) MDF(Medium-Density Fiberboard) : 목재조각 등으로 화학약품 처리하여 만든 섬유질(Fiber)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열압한 나무판(일반적으로 비중은 350kg/m<sup>3</sup>~850kg/m<sup>3</sup>)으로 관세 분류번호(HSK번호)는 4411류로 분류됨(파티클보드와 구분)

8) 국내생산자중 동화기업만 자체 생산한 파티클보드를 이용하여 MFB(피복된 파티클보드)를 생산중이며 (2024년 총 XXXm<sup>3</sup> 생산) 성장보드는 생산하고 있지 않음

또한 파티클보드는 휨강도,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에 따라 제품 종류별로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바, 휨강도에 따라 18형, 15형, 13형 등으로 구분하고,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라 SE0, E0, E1 등으로 구분하며, 주요 용도로 가구용품(책상, 싱크대, 일반 가구 등), 건축자재(건물 천정판, 내장판 등), 포장용품(각종 포장박스) 및 기타 목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결정한다.

## 2. 국내 동종물품

### 가.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의하면, “동종 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비조사보고서<sup>9)</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 생산품이 물리적 특성,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한다.

9) 예비조사보고서 pp.5-7.



## 나. 부과 제외 관련 검토

예비조사보고서<sup>10)</sup>에 의하면, 태국산 파티클보드를 수입하여 이중바닥재를 생산하고 있는 XXX 주식회사 (이하 “XXX”) 는 최근 수입하고 있는 태국산 파티클 보드가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표면밀도가 높아서 국내산보다 목질 가공이 수월하며, 국내산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특히 35mm, 38mm 두께 파티클보드의 경우, 현재 태국내 XXX, XXX, XXX 3개 업체와 중국의 몇 개 업체만이 생산하고 있고, 국내생산자가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35mm, 38mm 두께의 태국산 파티클 보드를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내생산자인 동화기업이 과거 35mm, 38mm 파티클보드를 생산하여 2020년에서 2024년 기간 중 XXX에 공급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XXX에서 주장하는 파티클보드 내 이물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동화기업과 성창보드는 국내에서 수집되는 폐가구 등에 포함된 못, 경첩 등을 제거하여, 밀도나 휨강도가 KS 품질기준에 맞는 파티클보드를 가공생산하고 있고, 파티클보드의 원재료인 우드칩은 폐가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도 포함되어 조사대상물품과 큰 차이가 없으며,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원목만을 사용하여 연질이기 때문에 가공성이 우수하다고 하나 이는 가구 설치 후 오히려 나사못 유지력이 떨어져 가구설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가공성은 동종물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화기업은 파티클보드 공급계약시 수요자가 원하는 사이즈 규격에 맞추어 출하하기 때문에 경진보드가 주장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0) 예비조사보고서 pp.8~9.

이와 관련하여,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인 동화기업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 35mm, 38mm 파티클보드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지와 보유시설이 현재도 생산가능한지 여부, XXX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국산과 국내산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품질등급이 있는지 여부 포함) 등을 추후 생산자와 수요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며, 6월 공청회시 파티클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측(조합이나 협회 등)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XXX의 부과 제외 요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과 제외 여부는 최종판정시 결정하기로 한다.

###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sup>11)</sup>를 기준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이 국내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내생산자가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했는지 여부, 국내생산자가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국내생산자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4.4.19.~2024.10.18.)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이 두 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100%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11) 예비조사보고서 pp.11-13.

위원회는 국내생산자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가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100%(2023년)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판단한다.

##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sup>12)</sup>에 의하면,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 비밀취급 요청 자료의 공개본을 제출하였다.

12) 예비조사보고서 pp.19~21.

조사실은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공개본을 제출한 점, 비밀취급 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요청한 자료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은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

## IV.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sup>13)</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Ltd.),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Ltd.),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Ltd.),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을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조사참여신청기간<sup>14)</sup> 동안 당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2개 공급자<sup>15)</sup>가 2025.1.3.~5. 동안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조사실은 수출물량 및 조사부담, 적시 조사종결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2025.1.15. 이를 통보하였다.

###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sup>16)</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4.12.16.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13) 예비조사보고서 p.22.

14) 조사참여 신청기간 : 2024.12.16.~2025.1.6.

15) 자발대응을 신청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5.1.3. 자발신청)와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25.1.5..자발신청)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수출자의 대한국수출물량은 각각 xx%(x순위), xx%(x순위)이다.

16) 예비조사보고서 p.23.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답변 기한 : 2025.1.31.)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하였다.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은 2025.1.6. 기한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은 2025.1.22.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 하여 당초 2025.1.31.이었던 답변기한을 2025.2.3.로 연장하고, 2025.1.24. 이를 통보하였다.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은 모두 연장된 기한인 2025.2.3.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5.3.18.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다.(답변기한 : 2025.3.25.)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은 모두 기한 내<sup>17)</sup>에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예비관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025.4.15.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 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7)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는 2025.3.19. 제출, ‘그린 리버 패널 트랑’은 2025.3.25. 제출, ‘바나차이 그룹’은 2025.3.24. 제출

###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가.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Ltd.),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Lt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18)</sup>에 의하면, 메트로 파티클과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는 태국 xxxxx(yyyyy)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태국 내수에 공급하고, 한국 및 제3국 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였다.

메트로 파티클과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는 각각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지만, 태국에 소재한 모기업인 xxxxxx이 각각 xx%, xx%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 관계에 있다.

메트로 파티클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 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x m<sup>3</sup>였다.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 (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 m<sup>3</sup>였다.

<sup>18)</sup> 예비조사보고서 pp.23~25.



예비조사보고서<sup>19)</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제조회사의 경우, 피신청인은 주요 투입요소 중 하나인 xxx의 공급자별 구매 내역을 일부 정보만 답변서에 제출하여, xxx 구매가격이 적정 시장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였는 바, 조사실은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인 xxxxxx의 관계사인 xxxxxx의 xxx 판매단가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xxxxxx의 xxx 판매단가는 조사대상공급자의 관계사 자료로 조사과정에 취득한 정보이며, 피신청인에 xxx를 공급하는 관계사와 판매 규모가 유사한 회사임을 확인<sup>20)</sup>하였다.

19) 예비조사보고서 pp.26~27.

20) 피신청인 관계사로 xxx를 제조, 판매하는 xxxxxx, xxxxxx의 판매규모는 각각 약 xxm<sup>3</sup>, 약 xxm<sup>3</sup>이며, xxxxxx의 판매규모는 약 xxm<sup>3</sup>임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의 관계사의 판매 단가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sup>21)</sup>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22)</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sup>23)</sup>하였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물량은 약 xxxm<sup>3</sup>(xx%)이었으며, 관계사간 거래가 이중으로 덤핑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하였다.

21) 예비조사보고서 p27.

22) 예비조사보고서 pp.28~35.

23) 피신청인의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로 물량 전체 측면에서는 통상거래 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나,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넘는 CCN이 3개이며, 이를 제외한 CCN은 충분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를 비교하여,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며, 100%인 경우에는 구성가격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적정이윤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임, 포장비용을 적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24)</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수출시 관계사를 통해 일부(약 xx m<sup>3</sup>) 한국에 수출한 바, 동 물량은 제외하고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덤핑가격 조정 요소는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신용비용, 커미션 및 포장비용 등을 적용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비교를 위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1.82%의 예비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24) 예비조사보고서 pp.35~37.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나.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Ltd.)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25)</sup>에 의하면, 그린 리버 패널 트랑은 태국 xxxxx(xxxxx)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태국 내수에 공급하고, 한국 및 제3국 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그린 리버 패널 트랑 외에도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도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며, 두 회사 모두 xxxxxx의 자회사로 특수관계에 있다.

그린 리버 패널 트랑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x m<sup>3</sup>였다.

그린 리버 패널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x m<sup>3</sup>였다.

---

25) 예비조사보고서 p.40.

예비조사보고서<sup>26)</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27)</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sup>28)</sup>하였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물량은 약 xxx m<sup>3</sup>(xx %)이었으며, 관계사간 거래가 이중으로 덤핑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를 비교하여,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며, 100%인 경우에는 구성가격을 사용하였다.

26) 예비조사보고서 pp.41-42.

27) 예비조사보고서 pp.43~47.

28) 피신청인의 총 내수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하지 않은 xx%로 물량 전체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지 않으며,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넘는 CCN이 없어 모든 CCN이 충분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모든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적정이윤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용 등을 적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29)</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조사실은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덤핑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및 포장비용 등을 적용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CIF 조건의 물량은 실체 수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비교를 위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3.14%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29) 예비조사보고서 pp.47~49.

#### 다.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30)</sup>에 의하면, 바나차이 그룹은 태국 xxxxx(xxxxx)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태국 내수에 공급하고, 한국 및 제3국 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바나차이 그룹 외에도,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도 조사대상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모두 xxxxxx이 지분을 xx%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다.

바나차이 그룹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 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 m<sup>3</sup>였다.

파티클 플래너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 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 m<sup>3</sup>였다.

바나차이 패널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 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생산량은 약 xx m<sup>3</sup>였다.

30) 예비조사보고서 pp.50~52.

바나차이 우드스미스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이며, 조사대상물품 관련 매출액은 xxx THB(약 xxx억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없었다.

예비조사보고서<sup>31)</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32)</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sup>33)</sup>하였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물량은 약 xx m³(xx %)이었으며, 관계사간 거래가 이중으로 덤핑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하였다.

31) 예비조사보고서 pp.52~53.

32) 예비조사보고서 pp.54~58.

33) 피신청인의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로 물량 전체 측면에서는 통상거래 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하나,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넘는 CCN이 없어, 전체 CCN이 충분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모든 CCN에 대하여 순송장가격과 생산원가를 비교하여, 원가 미만 판매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며, 100%인 경우에는 구성가격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모든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적정이윤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내륙운임, 신용비용, 커미션 및 기타 비용 등을 적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34)</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수출시 관계사를 통해 일부 (약 xxxx m<sup>3</sup>) 한국에 수출한 바, 조사실은 동 물량은 제외하고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다.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비교를 위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7.19%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34) 예비조사보고서 p.59.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 라. 그 밖의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sup>35)</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을 대한국 수출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메트로 파티클’,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의 예비덤핑률 산정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한 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률 산정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공급자인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의 예비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14.80%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35) 예비조사보고서 pp.60~61.

##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조사당국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덤핑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이 동종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 시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 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 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 1. 덩핑물품의 수입물량

예비조사보고서<sup>36)</sup>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33.1% 증가한 후, 2022년 XXXm<sup>3</sup>로 10.2% 감소하였으며, 2023년 XXXm<sup>3</sup>로 5.3% 다시 증가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m<sup>3</sup>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하여, 조사 대상기간 중 연평균 10.7% 증가하였는바, 덩핑물품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가 연평균 1.0% 상승한 상황에서 덩핑물품 수입물량은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연평균 10.7%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지속 감소하여 연평균 11.2% 감소하였고, 기타국산 물품 수입도 연평균 8.3% 감소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시장 점유율은 덩핑물품이 20.7%p 증가한 반면, 국내 동종물품은 17.5%p 감소하였고 기타국산 물품도 3.3%p 감소하여 덩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승분만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 점유율과 기타국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여 덩핑물품 수입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 2. 덩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예비조사보고서<sup>37)</sup>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m<sup>3</sup>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36) 예비조사보고서 pp.64~65.

37) 예비조사보고서 pp.66~69.

2021년 XXX천원으로 37.8% 상승한 후, 2022년 XXX천원으로 11.0%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천원으로 23.6% 하락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4.4% 상승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m<sup>3</sup>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24.7% 상승한 후, 2022년 XXX천원으로 13.4%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천원으로 11.2% 하락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여 조사 대상 기간 중 연평균 26.4%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국내동종물품의 m<sup>3</sup>당 판매가격의 XXX%에서 XXX% 수준으로 지속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국내 동종물품과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가 지속되는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 원가는 연평균 32.2% 상승했으나 판매가격은 연평균 26.4% 상승에 그쳤고, 2023년의 경우 제조원가가 8.9% 상승했음에도 판매가격은 오히려 11.2% 하락하였는 바, 덤핑물 품의 저가 판매가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제조원가 비중이 XXX%~XXX%로 높은 상황에서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이 26.4%이나 덤핑 물품 판매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은 24.4%로, 국내산업은 덤핑물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 상승분(연평균 32.2%)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의 영향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3.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sup>38)</sup>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m<sup>3</sup>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23년 하반기 국내생산자의 생산라인 1기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능력이 연평균 0.2% 감소되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1.3% 증가한 후, 2022년 XXXm<sup>3</sup>로 4.7% 감소하였고, 2023년 XXXm<sup>3</sup>로 다시 27.1% 감소한 후,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7.5% 감소하여 연평균 10.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1.2%p 상승하였으나, 2022년 XXX%로 4.4%p 하락하였고, 2023년 XXX%로 24.3%p 하락한 후, 2024년 상반기 XXX%로 전년 동기 대비 12.6%p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3.3%p 하락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가 연평균 1.0% 증가한 상황에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38) 예비조사보고서 p.71.

## 나.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sup>39)</sup>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1.2% 감소하였고, 2022년 XXXm<sup>3</sup>로 7.2% 감소하였으며 2023년 XXXm<sup>3</sup>로 24.0% 감소한 후, 2024년 상반기 XXXm<sup>3</sup>로 전년 동기대비 13.3%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1.2% 감소하였다.

동종물품 기말재고는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16.3% 증가하였고 2022년 XXXm<sup>3</sup>로 250.5% 증가한 후, 2023년 XXXm<sup>3</sup>로 19.6%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m<sup>3</sup>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5.1% 증가하였다.

동종물품의 총출하 물량 대비 재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증가한 후, 2022년 XXX%로 증가하였고, 2023년 XXX%로 증가한 후, 20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9.4%p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감소하고, 기말재고가 상승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 다.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sup>40)</sup>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하락하였고, 2022년 XXX%로 상승한 후, 2023년 XXX%로 하락하였으며,

39) 예비조사보고서 pp.71~72.

40) 예비조사보고서 p.72.

2024년 상반기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7.5%p 하락하였다.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하였고 2022년 XXX%로 하락한 후, 2023년 XXX%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20.7%p 상승하였다.

기타국산 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하락하였고 2022년 XXX%로 하락한 후, 2023년 XXX%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3%p 하락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승분만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과 기타국산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sup>41)</sup>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15.0% 상승하였고, 2022년 XXX천원으로 33.5% 상승한 후 2023년 XXX천원으로 8.9% 지속 상승했다가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2.2%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재료비(국내산 우드칩, 접착제)가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하여 동종물품 가격에 재료비 영향이 가장 컸다고 판단하였으며, 재료비는 2021년 18.1% 상승, 2022년 43.5% 상승한 후, 2023년 5.7% 하락

41) 예비조사보고서 p.73.



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대비 10.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1.0% 상승하였다고 조사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연평균 32.2% 상승했으나,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26.4% 상승에 그쳤는 바, 덤핑물품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지속 저가에 판매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sup>42)</sup>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이 11.82~17.19%로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 마. 이윤

예비조사보고서<sup>43)</sup>에 의하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으로 23.1% 증가하였고, 2022년 XXX백만원으로 5.5% 증가하였다가, 2023년 XXX백만원으로 32.5%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6% 감소하였다.

42) 예비조사보고서 p.73.

43) 예비조사보고서 p.74.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120.5%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백만원으로 60.4% 감소한 후, 2023년 -XXX백만원으로 적자 전환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도 -XXX백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했다가 2022년 XXX%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XXX%로 음수(-) 전환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바.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sup>44)</sup>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4.7%p 상승한 후, 2022년 XXX%로 -5.6%p 하락하였고, 2023년은 -XXX%, 2024년 상반기는 -XXX%로 2023년부터 내수영업 이익이 적자전환되면서 2024년 상반기까지 부(-)의 투자수익률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투자 수익률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44) 예비조사보고서 p.74.

## 사.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sup>45)</sup>에 의하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22.3% 증가했다가 2022년 XXX백만원으로 78.1% 감소하였고,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2023년부터 현금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덩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아.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sup>46)</sup>에 의하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20년 XXX명에서 2021년 XXX명으로 증가한 후, 2022년 XXX명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XXX명으로 감소한 후, 2024년 상반기 XXX명으로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XXX천원으로 증가한 후, 2023년 XXX천원으로 감소,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 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이 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5) 예비조사보고서 p.75.

46) 예비조사보고서 p.75.

## 자. 생산성

예비조사보고서<sup>47)</sup>에 의하면 국내 산업의 1인당 생산량은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6.2% 감소하였고, 2022년 XXXm<sup>3</sup>로 5.0% 감소한 후, 2023년 XXXm<sup>3</sup>로 25.6%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m<sup>3</sup>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8.3% 감소하였다.

1인당 매출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14.1% 증가하였고 2022년 XXX백만원으로 5.1% 증가 후, 2023년 XXX백만원으로 31.0% 감소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1% 감소하였다.

1인당 부가가치는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27.7% 증가하였고 2022년 XXX백만원으로 24.8% 감소한 후, 20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 및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0.7% 감소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47) 예비조사보고서 p.76.

## 차.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sup>48)</sup>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XXX백만원으로 하락 후, 2023년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XXX백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되었다.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로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7.5%p 하락하였다.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한 후, 2022년 XXX%로 하락하였고 2023년 XXX%로 하락한 후, 20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3.3%p 하락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카. 자본조달능력

예비조사보고서<sup>49)</sup>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내수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120.5% 상승했으나, 2022년 XXX백만원

48) 예비조사보고서 p.77.

49) 예비조사보고서 p.77.

으로 60.4% 감소 후, 2023년에는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되어,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 조달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자본 조달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sup>50)</sup>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설비투자를 지속했으나 노후화된 기계장비 교체 및 환경설비개선을 위한 투자로, 연구개발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액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2년 XXX백만원으로 40.7% 증가하였고 2022년 XXX백만원으로 65.1% 증가한 후, 2023년 XXX백만원으로 42.2% 감소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39.8%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

50) 예비조사보고서 p.78.

## 파. 종합 검토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가능한 자료 및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각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였다.

조사실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재고증가, 국내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하락,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매출액 감소 등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또한 상승한 반면,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 하락하였으며, 덤핑물품이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키고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재료비가 인상되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하락 및 적자 지속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VI.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예비조사보고서<sup>51)</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51) 예비조사보고서 pp.81~82.



우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지속 증가(연평균 10.7%)했고, 국내시장점유율도 2020년 XXX%에서 2024년 상반기 XXX%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4년 상반기 XXX%까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종물품보다 저가(가격비율 XXX%~XXX%)에 판매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 및 상승 억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료비 인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상황(XXX%~XXX%)에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는 재료비 상승분(연평균 31.0%)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은 영업이익이 하락('23년 -XXX백만원)하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다.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및 저가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동종물품의 생산량 감소(연평균 -10.7%) 및 가동률 하락(-33.3%p), 영업이익 감소('23년 -XXX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 감소(연평균 -20.7%) 등 국내산업 피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덤핑물품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산업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한다.

## 2. 덤핑물품 이외 요인의 영향

###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sup>52)</sup>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46.8% 감소하였고, 2022년 XXXm<sup>3</sup>로 22.5% 감소한 후, 2023년 XXXm<sup>3</sup>로 13.5% 증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m<sup>3</sup>로 전년 동기 대비 106.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8.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XXX%로 하락한 후, 2023년 XXX%로 상승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3%p 하락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판매 가격보다 낮았는 바, 국내생산자는 기타국산 물품에는 국내산 동종물품보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많고 휨강도가 낮은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기타국산 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sup>52)</sup> 예비조사보고서 p.84.

## 나.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sup>53)</sup>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2020년 XXXm<sup>3</sup>에서 2021년 XXXm<sup>3</sup>로 10.0% 증가한 후, 2022년 XXXm<sup>3</sup>로 9.6% 감소하였고 2023년 XXXm<sup>3</sup>로 6.1% 감소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XXXm<sup>3</sup>로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국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연평균 -11.2%) 했으며,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연평균 10.7%)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감소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소비 증가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다. 수출 실적

예비조사보고서<sup>54)</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이 모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수출이 내수부문에 미친 영향은 검토하지 않았다.

53) 예비조사보고서 p.85.

54) 예비조사보고서 p.86.

## 라.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sup>55)</sup>에 의하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 중 재료비는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18.1% 상승하였고 2022년 XXX천원으로 43.5% 상승한 후, 2023년 XXX천원으로 5.7%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1.0% 상승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으로 24.7% 상승, 2022년 XXX천원으로 13.4% 상승한 후, 2023년 XXX천원으로 11.2% 하락, 20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6.4%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이 재료비 상승분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거나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55) 예비조사보고서 pp.86~87.

## 마.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sup>56)</sup>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 요소로 열거된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56) 예비조사보고서 p.87.

###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되었다고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 급감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고, 국내소비 증가에도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덤핑물품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시점에서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 VII. 이해관계인의 기타 의견 검토

### 1. 파티클보드의 공급문제 영향

예비조사보고서<sup>57)</sup>에 의하면, 태국 공급자의 이해관계인인 태국 패널제품 산업 연합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시 국내 시장내 파티클보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생산자의 산업피해는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따른 것이고, 국내산은 태국산 수입제품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태국산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말련산, 인니산 수입이 가능하여 국내 시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와 관련한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생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용으로 국내 산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신청인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태국산 수입품과 국내산은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는 반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분석결과, 파티클보드는 태국뿐만 아니라 기타국 즉 중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과 동등한 가격 경쟁 시 기타국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품질의 차이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하여 국내산 대체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라 검토하였다.

57) 예비조사보고서 p.90.

아울러,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부담 비용은 파티클보드 산업에 국한된 규정이 아니며 모든 국가와 산업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국내산업피해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조사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자료 분석과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판정시까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국내생산자가 제출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를 검토한 바, 태국산 수입품과 국내산은 KS 품질에 따른 동일한 특성의 대체 가능한 물품으로 확인하였다.

## 2. 국내 산업 피해의 원인

예비조사보고서<sup>58)</sup>에 의하면, 태국 공급자의 이해관계인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자료를 분석한 바, 산업피해 및 덤핑간의 인과관계가 불일치하며 국내산업의 피해는 국내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시 국내 산업의 소비자 및 수요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서와 함께 덤핑마진 산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이 제기한 국내산업의 피해의 원인이 국내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에너지 비용 상승과 관련된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정부의 친환경정책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모든 국내 생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용이며 국내산업의 피해는 태국산 덤핑 물품의 수입 증가와 저가공세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8) 예비조사보고서 p.91.



조사실은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의 산업피해와 덤핑간의 인과관계가 불일치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태국측의 통계 분석은 HS 6단위 통계분석으로, 조사실의 HS 10단위 통계분석과 상이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국내생산자의 17개 지표에 대한 현지실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국내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진행과 에너지 비용의 영향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검토하였다.

또한, 과거 국내 파티클보드 공급 부족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된 적이 있으며, 수입 다변화를 통한 국내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자와 동등한 가격 경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태국측 공급자가 조사실에 제기한 덤핑마진 산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 제한에 대하여 조사실은 WTO 반덤핑 협정, 국내 관련법에 따른 비밀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종판정전까지 공청회 등 다수 계기에 태국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검토하였다.

## VIII. 잠정조치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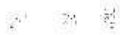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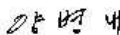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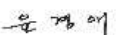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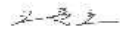

예비조사보고서<sup>59)</sup>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절대적(연평균 10.7%) 그리고 국내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상승(20.7%p)하였으며, 덤핑물품이 지속 저가에 판매되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가격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 가동률은 하락하였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손실 등으로 이어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신청인별 예비덤핑률(11.82%~17.19%)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59) 예비조사보고서 pp.92~93.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5년 04월 24일

위원장	이재형	
상임위원	양병내	
위원	조영재	
위원	강준하	
위원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위원	고준호	
위원	현혜정	

##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 붙 임 자 료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3.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4.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